

# 설악대불 북녘향해 '통일미소'

## 신흥사 통일청동대불 25일 점안



◇ 11년만에 설악에 나투신 일만구족한 석가모니 통일대불 상모

설악에서 백두까지 한몸이 됐다. 민족 통일의 비원을 안은 청동 석가모니부처님이 설악에 나투어 대지비로 분단의 아픔을 풀어 안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금년 설악의 단풍은 유난히 아름답다. 속초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는 11년간의 통일청동대불좌상 조성불사를 마치고 25일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좌정한 석가모니부처님을 형상화한 청

주물, 조립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하며 제작에 몰두했다. 87년 8월 공사를 시작한 청동대불 불사는 4년 동안 석고로 불상원형을 만들었고 94년에는 주물작업을 끝냈다. 95년에는 청동조각 조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11년간의 조성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30여만명이 동참해 무사봉안을 기원했다. 인종, 종교, 종파를 떠나



◇ 백장유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담은 사리병



◇ 검은사지 동량에서 출토된 사리함을 본떠 제작한 사리의함(사지위)과 사리가(사지오래)



◇ 통일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신흥사 통일대불(총 높이 18.9m).

## 아파트 6층 높이...청동 108t 들어 진신사리 3과 봉안...11년만에 회향

동대불은 거불(巨佛)이다. 좌대 높이 4.3m, 대불높이 14.6m, 좌대지경 13m, 광배폭 14m, 아파트 6층높이에 1백80의 청동이 사용됐다. 8면 좌대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16나한상이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특히 지름 10cm의 규박 1개, 8cm 짜리 8개로 된 미간 백호는 증생계의 무명을 밝혀주듯 찬란한 광채를 드러냈다. 이번 점안식에서는 92년 미얀마 정부기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3과와 다라니경, 칠보 등 백장유물도 봉안된다.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는 뜻이 불상조성에 함께 녹아 들었다. 특히 실행민이 많고 북한과 인접한 신흥사에 통일대불이 봉안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은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큰 인력과 신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대작불이었다"며 "통일대불이 민족의 평화통일 기원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늘 편안하고 지비가 충만한 통일기원도량으로 꾸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상은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시대 잠정심으로 설악에 나투신 신흥사 통일대불은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예견한듯 자비로운 웃음을 보였다.

김종근 기자

### 인미비 통일대불 제작 김성호 관장

"다감생에 걸쳐 서원을 다져왔을 통일대불 불사기간 동안 거듭거듭 깨달았습니다."

신흥사 통일대불 점안식을 앞둔 김성호관장(59·불교미술전시관·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회장, 김관장은 손꼽히는 불모(佛母)다. 금세기 최고의 불모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추만세(千秋萬歲)를 넘어 미래제(未來)가 다하도록 증생의 고난을 견져 줄 자비의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설악산은 순하후동 기운차가 높습니다. 최고 35℃일때 불상내부 온도는 80℃정도 달아오릅니다." 이같은 온도를 60%로 낮추기 위해 머리



부분에 환기구를 만들었다. 또 1도가 올라갈때마다 청동은 약 3mm정도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청동뚜껑을 1cm로, 내부 빔과 청동과는 5cm 유격을 줬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외부 33℃일 경우 불상내부는 22℃로 대성공이었다. 김성호관장이 가장 고심한 부분은 상모, 아무리 재질이 좋은 청동을 사

### 작은 능력 부처님께 회향 "환희심"

3만여개가 넘는 불상에 모든 혼을 담아 불자들에게 내놓았다. 그러나 신흥사 통일대불 만큼은 그에게 특별한하다.

김관장이 신흥사 통일대불 제작에 착수한 것은 86년. 그는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다. 경성 한번도 하기 어려운 대불조성은 신심없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

### 세계의 좌상대불

#### 중국 능운사 마애대불

· 713~803년 조성 · 높이 71m · 미륵불상 · 중국 최대의 마애대불 · 능운산 자세를 그대로 조성한 불상답게 푸른 이끼와 잡초, 나무와 어울려 마치 법의를 걸친 것처럼 신비스럽다.



#### 홍콩 보련사(포린수도원) 대불



· 높이 23m · 금동불상 · 린타우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야외불상.

#### 미얀마 자익폰사원 사면불



· 1476년 · 담마제더왕이 광생 결혼하지 않고 수행하며 살겠다는 4명의 공주를 위해 4구의 부처님을 조성했다. · 높이 18m.

#### 일본 동대사 좌불



· 8세기 초 · 높이 16.2m · 무게 452t · 얼굴길이 4.8m · 손길이 3m · 노사나불상 · 청동불상으로, 손바닥의 수평위에 약 16명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규모 · 쇼무천왕이 불교에 의한 국가의 진호(鎮護)를 발원, 9년에 걸쳐 8차례의 주조 끝에 완성됐다.

#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

## 결 의 사 항

1. 97년 10월 15일까지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립공원임장료 분리징수문제를 야기하여 국민과 교단간에 불화를 조장한 집권 여당과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의 산문출입을 엄금한다.」 단 교구본사 주지는 위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10월 18일부터 본말사에 부착하고 이를 실시한다.

1.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국립공원임장료 폐지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1. 9월 22일 결의한 산문폐쇄 조치는 추이를 지켜본 뒤 10월 25일 열리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 재논의한다.

1. 종단의 자주권 수호를 위하여 투쟁하는 속리산 법주사 주지 혜광 스님의 뜻에 적극 협력한다.

## 총무원 당국에 촉구한다.

1. 관료분리징수 관련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코자할시에는 본사 주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1. 협상 대표단 구성시는 증법에 따라 관료위원회에 임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1. 9월 22일 발표한 총무원장 성명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에서는 적극 지지한다.

불기 2541년 10월 13일

##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